

타미플루, 10대 투약 원칙적 금지

식약청, 미성년자 투여 삼가토록 허가변경 ... 수입액은 급격히 증가

우리나라에서도 미성년자(10-19세)는 조류 인플루엔자(AI) 치료제 <타미플루>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세계적으로 유행을 경계하고 있는 AI의 치료제로 널리 알려진 타미플루는 스위스계 다국적 제약기업 Roche가 제조한 인간 인플루엔자 치료제로 최근 일본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부작용 의혹이 제기돼 투약이 사실상 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합병증이나 과거 병력 등으로 고위험환자로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미플루를 10세 이상 미성년자에게 사용하는 것을 삼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허가사항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4월5일 발표했다.

일본은 타미플루를 복용한 10대 환자들이 정신착란 등 이상행동을 보이며 사망 및 투신 사건이 잇따르면서 사회문제화하자 타미플루 처방을 제한한 바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3월20일 긴급 안전성 정보를 발표해 아직 인과관계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경고의 의미로 고위험 환자를 제외한 10대들에 대한 타미플루 투약을 사실상 중지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10세 이상 미성년환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문제의 약 사용을 삼간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첨부토록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도 타미플루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조치를 예의주시하며 타미플루 부작용 관련정보 수집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한편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국내 의사단체와 약사단체에 배포해 처방과 투약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내에서는 타미플루 부작용 사례로 2005년 12월께 복용 후 악몽을 꾸었다는 보고가 1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타미플루는 Roche가 1999년 9월 인간 인플루엔자 치료제로 개발해 시판하고 있으며, 성분은 <오셀타미비르>로 인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표면에 존재하는 <뉴라미데이즈> 효소의 기능을 억제함으로써 치료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과 B형 모두에 효과가 있으며, 인플루엔자 감염 초기증상이 나타난 뒤 48시간 안에 하루에 2번씩 2캡셀을 5일간 복용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2001년 11월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아 18세 이상 성인의 인플루엔자 치료제와 예방제로 등장했으며, 이후 13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독감치료제 및 예방제로도 승인을 받았다.

최근에는 독감 치료제보다는 조류 인플루엔자(AI) 치료제로 세계 각국이 대량 비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01년 21억원, 2002년 2억원, 2003년 3억원, 2004년 73억원, 2005년 51억원, 2006년 50억원 상당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4/05>